

사진 속에는 현실이 있고

이것은 때때로 진짜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인 불가사의한 힘을

자니고 있다

- Alfred Stieglitz -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T_054.478.7114 / F_054.478.7100
<http://www.kumoh.ac.kr>



JUNE 2018 / VOL. 180

금오공대 소식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Letter

발행일 2018. 6. 15.

발행인 이상철

편집인 정인희 편집실무 오유진

발행처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054) 478-7078

주 소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디자인 애드게이트 054) 456-3434

표지사진 © 금오사진예술연구회

CONTENTS

Focus

- 04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디지털 대장간
개교 38주년 기념식
국제공학교육관 기공식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 원사업 선정

Together Kumoh

- 10 동문 소식_ 광현군 발전후원회장
동문기업 탐방_ 최은오 ㈜에이시스템 대표

Kumoh Greetings

- 14 금오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kit News

- 18 2018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2018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18년 제2차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개최
2018 학술전자정보 박람회
진로교육 교과과정 시범 운영
천원의 행복한 아침밥 효응

People 교수

- 22 신임교수 인터뷰
그리운 금오공대

People 학생

- 26 ROTC 후보생의 하루
금오사진예술연구회

People 동문

- 32 우리는 성장한다. 그리고 최고를 꿈꾼다.

Campus Life

- 34 해오름연수원
공동실험실습관 장비

kit Culture

- 38 3월 송상헌 초대전 “아버지의 노래”
4월 유진실 초대전 “城- castle”
5월 최순영 초대전 “수목놀이”

kit Love

- 41 후원의 집 소개
발전후원회장 취임식
약정 및 기탁 내역
예우사항
약정서
발전기금 안내



도서관 2층 금오마루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디지털 대장간

우리 대학 학생들의 융합적 마인드를 고취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에 구축되고 있다. 도서관 2층 금오마루와 3층 아트리움을 이르는 디지털 대장간이 바로 그곳이다. 평범했던 열람 공간이 자유로운 토론 및 협업의 카페형 공간으로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VR(virtual reality) 체험 공간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료가 집적화되어 있다.

“도서관이 ‘대학의 거실’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층 금오마루와 3층 아트리움에 조성된 디지털 대장간은 마치 거실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활동들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카페형으로 꾸며진 곳에서는 소규모 강연이나 토론을 진행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VR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신간도서와 독서인증제 도서를 편안하게 찾아보고 테마전시회를 통해 노벨상 수상 작품들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우리 금오공대도서관은

- 탐구와 휴식이 있는 도서관
- 토론과 이야기가 있는 도서관
- 지식과 문화가 넘치는 도서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서의 디지털대장간이 있는 도서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길 바랍니다”

- 도서관 손창식 수서·정리팀장 -



역대 노벨문학상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도서관 3층 아트리움



VR코너
다양한 가상체험
공간을 경험해 보세요.



도서관 3층 아트리움

개교 38주년 기념식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 등 51명 수상 이상철 총장 “연구 병행 교육 중심 대학 확립”

38주년 대학 개교기념일(5월 22일)을 맞아 5월 18일 본관 대강당에서 ‘개교 38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철 총장을 비롯해 금시덕 총동창회장, 곽현근 발전후원회장, 원종욱 대학원총동창회장 그리고 본부 보직교수 및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와 외부 협조상, 금강대상, 학술상, 공로상, 근속상 수여에 이어, 이상철 총장의 기념사 및 금시덕 총동창회장과 곽현근 발전후원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으로는 기계설계공학과 강용구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전자공학부 고지환 교수 등 4명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금강대상은 홍성욱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등 4명, 학술상은 임완수 전자공학부 교수 등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30년 근속상을 받은 정진호 국제교류교육원 팀장 등 총 51명이 이번 기념식에서 수상했다.

이상철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돌아보면 성장과 혁신이라는 단어로 대학이 걸어온 길을 표현할 수 있다”며, “이제 연구 병행 교육 중심 대학으로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속의 대학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전문화된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을 연 우리 대학은 1980년 3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의 2개 학과에 학생정원 320명으로 제1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대학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 3월 국립 대학으로 개편하고 2004년 현재의 양호동 캠퍼스로 대학을 이전했다. 현재는 9천5백여 명의 재적생(2018. 4. 1. 자 기준)을 가진 국립대학으로 성장했다.

국제공학교육관 기공식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 공동 연구 기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최첨단 국제화 교육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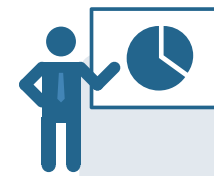


우리 대학이 5월 24일 오후 2시, 교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공학교육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우리 대학 청운대와 산학협력관 사이에 위치하는 국제공학교육관은 연면적 5,13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3년 여의 사업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약 1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제공학교육관에는 외국어 교육 전용강의실 및 교수실, 실험실 등의 연구 공간과 외국어 학습 공간, 국제공동연구 지원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영상회의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어카페와 게스트룸도 설치되며,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빗물재이용 시설과 태양광 발전설비, 그리고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상철 총장은 “국제화 교육에 필요한 최첨단 교수학습 인프라가 들어설 국제공학교육관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체계화된 공학교육에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형 공학교육 선도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및 ‘신소재연구소’
총 사업비 125억 원, 지역과의 동반 성장 기대



신소재 연구소
노재승 교수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김동성 교수

우리 대학이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됐다. 이공계 과학 기술 전(全)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우리 대학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와 ‘신소재연구소’가 선정되며, 총 1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 5년차를 진행하고 있는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연구에 함께 참여하는 기업들의 투자 대응자금 5억 원을 포함해 총 63억 원의 사업비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신소재연구소는 탄소 및 흑연 융합소재 연구에 특화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 기반의 소재부품사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금 9억 원을 포함 총 62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비 125억원



아름다운 캠퍼스 12대 명소 공모

- 접수기간 : 2018. 5. 18. (금) ~ 6. 29. (금) 18:00
- 참여대상 : 교내구성원 및 구미시민 누구나
- 주제
 - 연인, 가족, 친구가 함께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
 - 금오공대의 역사와 미래상을 담고 있는 곳 등
- 공모방법 : 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추천
 - 추천사유는 200자 이내로 작성 (사진 첨부 가능)
 - 제목에 '#명소'를 명기한 게시물 (건물 및 세부 장소를 함께 명시할 것)
 - 1명소 1게시물 원칙(개수 제한 없음)

|| 공통사항 ||

문 의 : 기획협력처 홍보협력팀 ☎ 054)478-724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www.kumoh.ac.kr)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제6회 kit 캠퍼스 사진 공모

- 접수기간 : 2018. 4. 2. (월) ~ 10. 2. (화)
- 참여대상 : 우리대학을 사랑하는 대한민국국민및외국인
- 공모분야 :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제에 부합되는 창작물(1인당 3점 이내)
- 주제
 - 캠퍼스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봄·여름·가을·겨울)
 - 각종 동아리 및 교내행사 등 열정적인 활동 모습 등
- 공모방법 : 이메일제출
 - 작품 및 응모신청서, 작품명찰 1부
 - ※ 응모신청서 및작품명찰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곽현근 발전후원회장
(주)대경테크노 대표이사



프레스 가공 및 금형기술
분야에서 독보적

금오공대 등 5개교에
10여 년째 장학금 전달



곽현근 발전후원회장, (주)대경테크노 대표이사

“철저한 자기관리와 장인정신, 최고기업 만들어...”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10년 혹은 20년 후 성공의 도착점에 이르러 있을 때를 꿈꾸며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3월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장에 취임한 곽현근 (주)대경테크노 대표이사는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아무 연고가 없던 구미에 단신으로 오게 됐다. 처음 프레스 가공을 하는 작은 공장에 취직을 해서 늦은 나이에 구미전자공고를 야간으로 마쳤다.

43년간 기술현장의 일선에서 엔지니어로 경험을 쌓은 곽 대표는 2002년 3월 구미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로 진학 후 2010년에는 금오공대 산업대학원에 입학, 2년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에 이른다.

“말 그대로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족과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공단이 있는 구미로 오게 됐습니다. 취직해서 돈도 벌고 여유가 생길 즈음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게 되어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곽 대표는 만학의 꿈을 이루면서 장학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할 무렵 자신이 학교와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서 졸업한 학교를 찾아 다니며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장학 사업은 모교인 금오공대를 비롯해 구미대, 구미전자공고, 선주고, 천안 목천중 등 5개교에 이른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장학 사업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곽 대표는 모든 일에 있어 철저한 자기관리와 장인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손꼽는다. 현재 경영 중인 (주)대경테크노는 1999년 창업 후 프레스 가공 및 금형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구축하고 있다. 곽 대표는 2011년 제 58호 기능한국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기능경기위원회 기술위원장, 중소기업협의회 회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수석 부회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기업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곽 대표는 지난 3월, 금오공대의 발전후원회장직을 맡았다. ‘모교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배려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결정한 일이다.

“어차피 주어진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인재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을 키우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배들에 대한 조언으로 곽 대표는 “꿈은 원대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한 행동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 어떨 때는 악착같이, 지독하게, 될 때까지 근성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특히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산학협력과 기능한국인 우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에 우리 대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곽 대표는 향후 목표에 대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우리사회가 배려와 소통을 통해 발전된 미래를 설계 할 수 있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인연(因緣)’

최은오 (주)에이시스템 대표
(전산전공 82학번)

“학교와 사회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
세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
기를 바랍니다”

금오공대 전산전공(82학번) 출신의 최은오[56·(주)에이시스템 대
표] 동문은 대학 졸업 후 벤처기업에 취직해 전산분야의 엔지니어로
일했다.

“당시는 제조업이 활황이던 시기여서 공대를 나오면 어디라도 취업
을 해서 밥은 먹고 살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실력이 있어야 취직을
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시기였으니지금
생각해 보면 꿈같은 시기였죠(웃음)”

대학에서 배운 공부가 개인적으로 적성에도 맞았고,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잘 받았기에 ROTC 장교로
근무를 마치고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 출발
은 작은 벤처기업이었다. 매년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홀로 달성
하면서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좋은 일 뒤에는 항상 경계해야 할 어둠이 있다고 했던가? 부
하 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회사 대표로부터 오해를 받는 사건
이 발생했다. 상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한 결과다행히 잘 마무리 되었지만 회사 대표와의 사이에 생긴 신뢰
문제는 또 다른 상처였다. 결국 신뢰가 없다면 함께 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당시 가졌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퇴사
를 했다.

헤드헌터를 통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던 중 오랫동안 거래
하던 독일의 다국적 기업 대표가 한국지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독
일 기업의 한국 지사장으로서는 짧은 기간 내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다

최은오 (주)에이시스템 대표 (전산전공 82학번)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바로 ‘사람(人)’ “믿어 준 사람에게 실력과 신뢰로 보답해야..”

지금의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도 독일회사 대표와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현재 (주)에이시스템의 주 거래처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추억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동양인 청
년에게 거금을 투자해 줄 외국인분이 있을까요? (웃음) 인연을 소중하
게 생각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저를 믿어 준 사람에게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였어요. 바로 제가 가진 실력으로 신뢰와 믿
음에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았던 그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최 대표는 회
사 수익이 증가할 때마다 정기후원을 늘리고 있다. 그렇게 시작된 정
기 후원이 벌써 40명을 훌쩍 넘겼다.

“앞으로 100명의 학생에게 정기후원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
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년만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NO. 1이 되는 순간 조력자
가 나타납니다. 실력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으니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
랍니다”라고 조언했다.

60세를 바라보는 최 대표는 새벽 5시 반에 출근해 새벽 1시에 퇴근한
다. 독일, 캐나다, 폴란드 등 외국 회사들과 사업을 하며 하루에
3,000km를 다닌 적도 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회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
존경 받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최 대표에게 남은 인생의 마지막 목표
다. 가족은 부인 양란실씨와 1남 1녀가 있다.

35여 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건축학부는 건축의 예술적, 조형적 측면을 중시하는 ‘건축학’ 전공과 과학적,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건축공학’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학전공은 5년제 과정의 설계중심 교육을 근간으로 건축의 역사, 문화, 철학적 사고와 도시, 조정, 환경계획 등의 교육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고, 건축공학 전공은 건축구조, 시공, 환경 및 설비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간과 그 실제적 구현을 위해 국제적 자격을 갖춘 전문 건축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가장 주목받을 건축학부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건축학부장 김우석 교수

화학소재융합공학부는 화학의 응용을 기반으로 한 고분자, 소재디자인, 환경, 응용화학, 화학공학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학부입니다. 다양한 전공이 있는 학부인 만큼 연구와 교육, 지역봉사각각 전공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장의 기본 업무인 대학 본부와 학부 간의 소통 및 행정업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학소재융합공학부장 지광환 교수

산업공학부는 인간, 기계, 자원, 정보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을 최적화된 공학기술을 통해 전통적 생산서비스 및 사회적 기술시스템 등에 다방면으로 응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적의 융합 공학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특히 대경지역을 선도하는 디자인공학은 대한민국인재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각종 디자인 및 설계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수진들은 기술 융합 시대에 맞춰 전문 지식과 실무적 설계 능력을 갖춘 창의적 엔지니어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공학부장 차우창 교수

21세기 첨단산업의 기반 학문을 연구 및 교육하는 신소재공학부는 미래 첨단소재 산업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공학인증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취업률 향상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성화사업단인 첨단소재·부품 자기주도형 창의교육사업단에서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적응형 교육 및 인성계발 도모 등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이끌어가는 신소재공학부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소재공학부장 김석환 교수

기계공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 공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학문으로서, 자동화와 학문 융합이 가속화함에 따라 기계공학 전문가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공학인증을 바탕으로 이론·실습·설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문제해결 및 설계해석 능력, 윤리의식 등을 두루 갖춘 유능한 공학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다년간 학내 우수 학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학과 구성원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꿈과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학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장 김동주 교수

기계설계공학과는 역학의 기본 이론과 관련 응용 분야의 교육, 연구 및 실험 실습을 통해 기계 산업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졸업생들이 산업체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기계설계 공학도 양성을 목표로 전체 구성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 학기의 설렘으로 시작했던 3월이 지나고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신입생과 복학생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기계설계 공학과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밝은 내일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계설계공학과장 손정우 교수

기계시스템공학과는 기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및 지능기계공학과가 특성화 사업을 계기로 통합하여 화학적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특성화사업단인 융합형 프로 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을 통해 취업 및 전공역량, 국제화역량이 한층 향상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특징인 메카트로닉스공학(기계공학+전자공학)을 근간으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설계, 제어, 통합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엔지니어를 배출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계시스템공학과장 허장욱 교수

금오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부산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및 유럽에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섬과 같았던 한국의 반도가 대륙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꾸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목공학과 공학도들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넓어지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충실히 준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됩시다.

토목공학과장 한상묵 교수

3월에 진행된 학과 MT는 신입생과 재학생, 교수가 모두 모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과 각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이 반복되어 서로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전된 관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기억한다면 계속 연결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장 김선명 교수

바야흐로 우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컴퓨터공학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SW 기초 및 실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코딩 멘토, 특강 등 다양한 비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졸업생들이 삼성전자, 네이버 등 IT 기업에 취업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공학도들에게는 분명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컴퓨터공학과는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오늘, 희망의 미래, 함께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컴퓨터공학과장 황준하 교수

광시스템공학과는 광학 및 광공학 인력을 배출하는 영남권 유일의 학과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는 광학산업분야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기본 목표로, 광학계 설계, 레이저 시스템, 광전자공학 등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좋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기대됩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자상히 이끌어주며 협력하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시스템공학과장 이태동 교수

메디컬IT융합공학과는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공학, 의학, 생물학등의 다양한 전공을 융합한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국책사업인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기반구축사업” 및 “산업단지 캠퍼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및 뇌공학, 인체생리학 등의 의공학 교육과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등의 산학융합 교육을 통해서 융합전공 중심학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0%의 취업률을 달성, 4차 산업의 주역이 될 주인공들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메디컬IT융합공학과장 최세운 교수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있는 금오공대는 수요일에 기반한 인력양성이 필수불가결합니다. IT 융합학과는 재직자 특별전형 후진학 학과로서, 현장맞춤형 창의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와 경영, 품질관리의 융합 교육을 바탕으로 한 학생의 역량제고를 통해 지역기업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학생들이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필요한 경영 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T융합학과장 김영형 교수

논리적 수학과고력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공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금융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다루는 응용수학과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130여 명에 이르는 학과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고, 꿈을 이뤄가는 금오인, 자랑스러운 금오인이 되도록 개개인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 또한 학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응용수학과장 전용배 교수

경영학과에서는 전공역량뿐만 아니라 교수들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표, 창의, 팀워크, 문제해결 전략적 사고 등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전공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 경진대회와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기업 금융기관을 비롯해 경영컨설팅, 경영·경제연구소, 교육행정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경영학과장 이용환 교수

지식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교양은 ‘사람답게 사는 것’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교양은 삶을 가치 있게 하여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줍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스스로 행복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주머니한 물건처럼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차가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더러는 나를 위로하고, 가끔은 남을 이해해 주기도 하는, 그러한 따뜻한 행복을 모두 가졌으면 합니다.

교양교과장정부장 김석배 교수

※ 전지공학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8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1단계('15) 이어재선정, 국비 17억1천만원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 · R&D 역량 강화기대”

우리 대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18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공과대학생의 현장실무 역량강화와 중소기업의 취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 사업에는 3년간 17억 1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산업인턴지원사업은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과 교육 및 취업을 상호 연계해 현장밀착형 R&D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대학은 6개 권역 가운데 대경권 산업인턴지원사업단의 주관기관으로서 △지역대학(대구·가톨릭대, 영남대) △참여기관(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중소기업협의회) △협력기관(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 대학이 이끄는 대경권 산업인턴지원사업단은 지난 2015년에도 1단계 사업에 선정돼, 매년 이루어지는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우수’ 그룹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지난해 열린 제1회 지역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우수사례에서도 우리 대학



학생과 가족기업이 학생 및 기업 두 부문 모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성호 대경권 산업인턴지원사업단장은 “1단계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지역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창출 및 R&D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인천권, 경기·강원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 호남권(전라, 제주),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2018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대경지역 주관기관 확정
“대학 자원 활용해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우리 대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서 우리 대학은 총 6개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을 총괄하는 주관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 대학 중소기업공학 컨설팅센터는 과제 모집을 통해 기술 인력이 부족한 지역 기업과 우수한 전문가를 매칭, 애로기술 해결

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김태오 중소기업공학컨설팅센터장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 및 물적 자원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지역 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 창출에,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속적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산학협력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은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하고 R&D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개 권역 전체에 167개 과제가 시행되며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2단계 계속사업’ 확정
기업·연구기관 공동협력 기술개발 성과

우리 대학이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에 재선정되며 2단계 계속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시행하는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은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원)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및 R&D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장 6년(1단계 4년+2단계 2년)의 지원기간 중 1단계 사업 종료 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4년 1단계 사업에 선정된 우리 대학은 이번 연차평가 결과 2단계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총 예산 26억 원(국비 16억, 대응자금 10억)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우리 대학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그동안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약 8억3천만 원의 기술이전료와 특허 및 논문 등의 성과를



거둬 기술개발 실효성을 높인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구미산업단지공단 등의 지역 산업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산학협력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2단계 사업 선정을 계기로 ICT분야의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민군 ICT융합 분야 인재양성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정보소외 지역 진로탐색 지원 확대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 공정성 확보 노력

우리 대학이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4억4천1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3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이 대입전형을 간소화하여 공교육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며 올해는 총 68개 대학이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올해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보 소외 지역의 진로탐색 지원을 확대해 고른 기회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고른기회전형 입학생의 안정적 대학 적응을 위해 추수지도를 강화한 노력도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교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체험 기회를 제공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 이번 사업 선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현규 입학관리본부장은 “지역 고교생들의 전공탐색 및 진로 설계를 위해 공학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립대학으로서 수험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학전형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제2차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개최

우리대학 주관, 18개 국내·외 총장 참석
국립대 발전 위한 교육부와의 지속적 소통 채널 역할



국·공립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8년 제2차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4월 5일부터 양일간 금요일

산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총장협의회에는 주관교인 우리 대학을 비롯해 회장교인 안동대 등 협의회 소속 19개 대학 가운데 18개교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찬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권태환 안동대 총장의 개회사와 이상철 우리 대학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안건 협의와 교육부와의 대화 순서로 이어졌다.

회의 안건으로는 △국가공무원 증원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 △필수 보직기간 내 자체 전보제도 개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방법 개선 △장기계속 시설사업 예산 확보 개선 등을 다루었으며, 교육부와 의 대화 시간에는 최수진 국립대학정책과장이 참석해 국립대학의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 국립대 발전방안 공동연구 T/F 운영 경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8 학술전자정보 박람회

국내·외 전자 정보 활용 교육 주목
학습 및 연구, 취업 등 활용 기대

우리 대학 도서관이 4월 11일 교내 도서관에서 '2018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학술 전자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누리미디어, 엠스코코리아 등 12개 국내·외 학술전자정보 관련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전자 서비스를 안내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체험 부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관련 DB 전문가들로부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전자자료 사용법을 배우며, 학습 및 연구·취업 등의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교내 도서관에서 국외 전자저널과 웹 데이터베이스 관련 심화 교육이 별도로 제공돼 주목받았다.



이경희 금오공대 도서관장은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전자정보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콘텐츠 공급을 통해 학습과 연구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로교육 교과과정 시범 운영

올해 1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
자체 전문 인력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우리 대학이 올해 1학기 '진로교육 교과과정'을 시범 운영했다. 체계적인 학생 진로지원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진로교육 교과과정은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1년간의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진로교육 교과과정은 취업지원본부의 취업 프로그램인 'K-JOB 119'와 연계해 운영된다. 2016년 대학진로교육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는 K(KUMOH)-JOB 119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은 4학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이 프로그램을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외부 대행 의존 비율이 높은 일반 취업 프로그램과 달리, 전문성을 갖춘 대학 자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음은 물론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매 학기당 총 5회 시행되는 진로 교육 수업 일정 가운



데 1회 이상 학년별 맞춤 진로교육을 받게 된다. 1학년은 자기 발견과 직업세계의 이해, 2학년은 자기분석(SWOT) 및 취업 역량 강화, 3학년은 직종·직무 탐색과 분야별 취업 전략, 4학년은 모의면접 시행 및 인적성·CS직무능력검사 등의 커리큘럼이다.

윤성호 취업지원본부장은 "채용시장에서 대졸 취업난이 가중돼 진로교육과 취업 지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진로교육 교과과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원의 행복한 아침밥 호응

중간·기말 시험기간매 2주간
"맛, 영양, 가격 모두만족"



올해부터 우리 대학이 중간·기말 시험기간 중 '천원의 행복한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아침밥 먹는 문화의 확산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한 '천원의 행복한 아침밥'은 이상철 총장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으며, 시행 기간 내 200인분의 한식 백반을 1,000원에 판매한다.

김정진(신소재공학부·3) 학생은 "천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에서 맛있는 아침밥을 먹으며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맛과 영양, 가격에서도 아주 만족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침 7시부터 학생들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 김정희 조리반장은 "천원의 행복한 아침밥 행사 시작 이후 많은 학생들이 학교 식당을 찾는 것 같다"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내 아들, 딸처럼 흐뭇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신임교수 인터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강준경입니다.

신임교원으로서의 소감

금오공과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된 지 어느새 4개월이 지나갑니다. 여러 걱정을 안고 첫 학기를 시작하였지만, 막상 학생들과 마주해보니 더욱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따라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좋은 교수’가 무엇일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답은 제가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실천하겠습니다.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건축은 감성과 이성이라는 개념이 항상 공존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롭고 흥미로운 연구주제 및 결과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실무를 통해 주변 환경, 사용자의 특성, 건물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하여 경험하였고, 사회 및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이면서 미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생각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환경기능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환경기능과 미적인 부분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 알고리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설계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임교원으로서의 소감

먼저 전임교원으로서 금오공대의 일원이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느덧 첫 학기가 마무리 되는데, 학생 및 동료 교수님들과의 관계 형성과 강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보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도움으로 빨리 적응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금오공대에서의 시간도 더욱 기대됩니다.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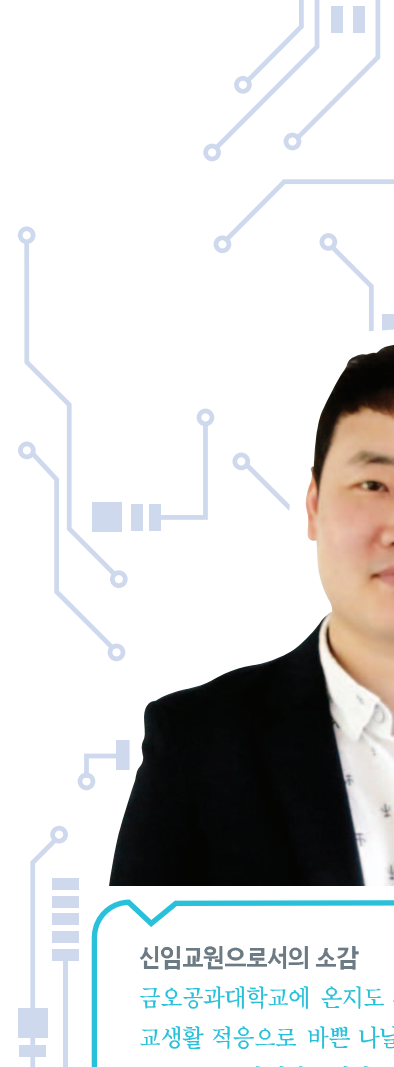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의 나노기술에 큰 흥미를 느껴 신소재공학을 선택하였습니다. KAIST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할 당시 신개념의 나노공정기술인 Proximity-field nanoPatterning (PhP)의 개발자 지도교수님으로 만나면서 국내에 최초로 이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주기적 3차원 나노구조를 대면적 상에 빠르게 제조할 수 있는 실험적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나노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유익한 신물성을 탐구하고 이를 거시적 소재에서 구현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를 하면서 놀라운 수준으로 정렬된 3차원 나노구조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유익한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연계의 나노구조와 물성을 인공적으로 모사함으로써 지금껏 인간이 구현하지 못했던 신개념의 원천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노융합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과목 개발, 교재 집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부
박준용입니다.



전자공학부
제어 및 로봇전공
이승환입니다

신임교원으로서의 소감

금오공과대학교에 온지도 4개월이 되어갑니다. 강의준비와 학교생활 적응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고,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저는 로봇틱스를 전공하였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 기술(SLAM, Pathplanning, Obstacle Avoidance, ...)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학부 때 전공동아리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제어와 로봇틱스에 흥미를 가졌었고, 대학원을 진학하여 더욱 로봇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학위를 받고, 삼성전자 생산기술 연구소에 입사하여 반도체 현장의 자율주행 물류로봇개발을 진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금오공과대학교 제어 및 로봇전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를 더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제 연구실 이름은 Multi-agent System Lab (MASL) 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ingle Robot으로 연구되던 것을 Multi-agent System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Cooperation, Coordination, Organization, Information Consensus, ... 등 Single Robot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 방법들의 최적화와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어 & 로봇 연구의 흐름을 잘 반영하여 학생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교원으로서의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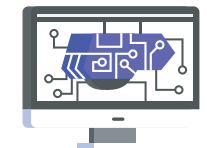
금오공대로 부임하여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첫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 교수님들을 도와 열심히 강의와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어려서부터 기계/전기 시스템에 흥미가 많았고, 이를 계기로 학부에서 기계공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석사과정 동안 능동형 제진시스템을 연구하였으며, 박사과정 동안 나노입자 3차원 프린터라는 새로운 개념의 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생산기술과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박사후 연수 기간 동안 새로운 생산기술을 센서, 에너지 소자, 음향학적 메타재료 등에 응용하는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나노입자 프린터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 발전시켜 이를 고감도 센서, 로봇, 에너지 하베스터의 제작과 항공기, 자동차, IoT 등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박사후 연수 중 개발한 전기방사 시스템을 전자파파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학술 교류 및 협력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
이길용입니다.

그리운 금오공대

산업공학부 교수 조진형
(2018. 8. 31. 퇴직 예정)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사랑하는 연인이 각자의 사명을 완수키 위해 헤어지며 남긴 ‘I already miss you’라는 말이 되새겨 집니다.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학교를 떠나는 그리운 마음을 대신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이 학교를 사랑했고, 사랑하지만 늘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가곡 ‘Vaghissima Smbianza(아름다운 그대 모습)’의 노랫말은 ‘아름다운 네 모습, 그려진 너의 모습 조금도 변함이 없어...’ 입니다. 필자에게 그려진 금오공대의 모습도 요소요소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입니다. 최고를 어설픈 흥내 내는 야류가 아니기에, 그래서 강하고 멋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있을 것이라는 이 노랫말이 생각났습니다.

대학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생물인 인간도 10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강한 것 같은 대학도 너무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성원들은 자기 발전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대학이라는 블록이 순항할 수 있도록 팀워크에도 최선을 다하길 당부드립니다.

관리공학에서 팀워크는 동기부여와 함께 소통(communication)을 바탕으로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한 원효대사는 화쟁을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종파와 이론적 대립을 소통시키고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불교 사상으로 ‘화(和)’는 화해·화합·조

화를, ‘쟁(諍)’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말이나 글을 뜻합니다. 즉, 화쟁은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학설과 이론의 화해와 화합을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통섭(統攝, consilience)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 권하고 싶은 것은 협치(governance) 기능입니다. 행정 쪽에서 사용하던 것을 경제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학자가 엘리나 오스트롬(E. Ostrom) 교수인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 빈세트 오스트롬(V. Ostrom) 교수와 협치를 주장했는데, 이는 가외성(redundancy)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외성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 효율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우친 것도 인간입니다. 오늘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4.0의 벤치마크이기도 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프랑스의 ‘유도계획(indicative planning)’ 등과 함께 전후 유럽에서 변화한 자본주의 형상들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0년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된 사회적 책임의 ISO26000으로도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독일의 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곳 CEO의 기업경영 목표는 지극히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이었고 아주 구체적이었는데, 노조위원장의 목표는 ‘CEO를 잘 돕는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스러웠지만, 이해관계자를 중시하고 CEO의 책임경영을 전제로 하는 올바른 운영 방향이라는 공감이 들었습니다. 2017년 마지막 금오공대 소식지(178호)에 신임 총장님의 경영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금오 구성원들은 총장이 제안한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돕고 총장도 대학의 최고경영자로서 소통을 바탕으로 확실한 책임 경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필자는 인문학에 접근하려 많이 노력했지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로 대표되는 인문학은 특히 우리 이공학도들에게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며 산업혁명이 이슈화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의 주요 수단이었고, 이를 활용하여 섬유공업과 제철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진정한 혁명은 아닙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의복을 예로 든다면 소유한 몇 벌의 옷으로 그 신분이 표현되던 이전 시대에서 섬유공업의 발전 이후 더 이상 의복 자체만으로는 신분 차별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형상이 바뀌고 의식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란 용어 자체는 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 후반으로부터 거의 100년 후 1884년 토인비(A. Toynbee(1852-1883)의 사후 저서에서 시작되었다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 도구 중 하나인 AI는 1956년에 IBM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왔지만 아직 일상생활에 녹아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그림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정을 떠나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대학이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인재와 결과물의 생산에 있어 쓸모있는(applicable) 작품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외성을 가지며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갈 때 더욱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OTC 관련 설명도 해주기 위해 좀 더 자주 입거든요. 홍보 효과도 효과지만 무엇보다 단복을 입으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정제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후보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된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 인터뷰도 152학군단 ROTC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OTC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임종민 학생이 신입생이었던 2015년이다. 당시 제복을 입은 학생들이 종종 보여 뭐하는 사람들일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정도였을 뿐 ROTC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였다. 그러던 중 ‘활인검’이라는 검도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동아리 선배가 ROTC 54기였다고 한다. 그 선배의 권유로 ROTC에 지원하게 됐고, 필기,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ROTC 57기에 합격하게 됐다.

ROTC는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지원받아 합격하면 2학년 겨울방학에 기초 군사훈련 2주를 수료한 후 3학년 때 입단식을 한다. 이때부터 정식 ROTC 후보생이 되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데, 정규 수업과 더불어 주 6시간의 군사학 과목을 수강하며 군 관련 교육 및 후보생으로서의 덕목 등을 배우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체력 단련과 함께 하게 및 동계 훈련을 각각 4주와 2주씩 거치며 완벽한 ROTC 후보생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임종민 후보생은 오는 하계방학 때 육군소위가 되기 위한 임관종합평가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더욱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임관종합평가는 육군소위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지식, 체력 전반에 걸쳐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속지할 것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강해져야 해서 부지런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학 수업을 열심히 듣고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인 체력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전공 수업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교 후보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솔선수범해야 하니까요. 얼마 전까지는 전공 관련 자격증 시험 준비를 했었고 요즘은 틈이 날 때마다 어학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전공 수업과 군사학 교육, 체력 관리에 어학 공부까지 ‘바쁨’과 ‘열심’이라는 두 글자가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임종민 후보생은 학군단 자치위원도 맡고 있다. 학군단 자치위원은 각 기수마다 약 30명 정도 되는 후보생들에게 전달사항을 전파하고, 체력단련 및 건의사항들을 검토하여 건의하는 일들을 수행한다. 학년별로 총 6명의 자치위원(대대장, 중대장, 인사과장, 정보과장, 작전과장, 군수과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임종민 후보생은 중대장 직책을 맡고 있다.

“졸업 후 28개월간의 군 생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기초 군사훈련을 갔을 때의 묘한 설렘과 긴장감을 다시 한 번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멋진 육군장교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화학소재융합공학부 4학년 임 종민

6시 30분, 맞춰놓은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아침운동을 위해 학군단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더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움츠리지 않아도 되는 초여름의 이 계절이 반갑다

체육관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학군단이 가까워질수록 동기와 후배들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7시 20분부터 시작되는 체력단련을 준비하는 모습과 함께. 나도 학군단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 준비를 한다. 기초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어지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km달리기 등의 체력단련을 통해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40~50분 동안의 체력단련이 끝나고 1교시 수업이 있을 때는 서둘러 돌아와 수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이 꽤 가볍다.

고분자공학전공 4학년 임종민 학생, 아니 임종민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후보생. 오늘 인터뷰 대상자다. 임종민 후보생은 금오공과대학교 제152학군단 소속 57기다.

“단복은 주로 군사학 수업이 있는 날에 입게 되는데 3월에서 4월 초에는 훨씬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ROTC 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ROTC 후보생의 하루





사진의, 사진에 의한, 사진을 위한...

그 어떤 카메라보다 인간의 눈에 담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말은 눈 다음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카메라라는 말이다. 기억하고픈 그 찰나의 순간을 가장 확.실.하.게. 남겨주는 카메라의 렌즈 뒤에서 오늘도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한다. 카메라 한대만 있으면 기쁨, 슬픔, 즐거움, 행복을 다 저장할 수 있다는 우리대학 금오사진예술연구회 동아리 회장, 조우신(신소재공학부 4학년) 학생이다.

1. 금오사진예술연구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1986년 7월 3일에 창립해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느낌이 나서 최근 회원들과 같이 동아리 이름을 바꿔볼까 고민한 적도 있지만 긴 역사만큼 이름도 잘 이어가자 싶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교내 축제 기간에는 ‘공대사진관’으로 활동합니다.

2.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지도교수님이신 이동구 신소재공학부 교수님 이하 11학년 선배들부터 18학년 후배들까지 약 14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동아리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5명 안팎이었는데 그 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열심히 모집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사진에 대한 관심이 요즘 부쩍 높아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인원이지만 정기적으로 모여 즐겁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회장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과거에는 필름 현상이나 인화 등 필름 카메라와 관련된 공부나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포토샵과 같은 디지털 사진 강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메인은 야외활동입니다. 1학기에 합천영양재 마파크, 경주, 부산에 다녀왔고 근처의 동락공원과 금오산도 자주 가는 곳입니다. 대구·경북 대학 연합 사진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가거나 연합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축제 때 ‘공대사진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동아리 운영에 보탬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잘 하고 싶어 다양한 공을 들여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조명과 배경 설치, 절단기 등을 열심히 준비해 문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 호응이 무척 좋아서 구미시민들을 포함, 교내·외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촬영하고 인화하고, 추억을 선물하는 만큼 솔직히 수익금도 쌓여간다는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수익금을 정산했는데, 참여 인원당 수익이 약 1만 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 오픈이라서 준비물을 구성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원가 계산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즐거웠던 기억이지만 그만큼 많이 아쉽기도 했던 추억입니다.

5.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 있나요?

제가 회장이 된 후 동아리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회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출사 및 행사 등 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4학년이어서 이전보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보다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비는 조금 더 내도 괜찮아요! ! !)

6. 회장으로서는 어떤 동아리로 만들고 싶은가요?

교내 사진공모전에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많이 입상해 금사연 대학 달력이 된다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준비한 사진들을 통해 학교 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도 이루고 싶은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와서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동아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원우회를 만들어 졸업 후에도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사진 동아리라는 이름에 맞게 사진에 중점을 뒀어 하겠지만 떠올리면 언제나 편했던 곳이라는 생각을 후배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7. 동아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먼저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동아리 친구들입니다. 큰 불평 없이 행사 때 마다 즐겁게 활동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학교 소식지에 실려 기쁘고 이것 또한 선·후배 동기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들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

금오사진예술연구회는 나에게 000이다.

신소재공학부 13학년 정수민

금사연은 나에게 초인종이다. 나를 계속 올려주기 때문이다

경영학부 18학년 유현재

금사연은 나에게 오징어다. 오랫동안정그럽게 어울린다. 너무 좋다.

신소재공학부 13학년 조우신

금사연은 나에게 감동적인 장면이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다.

금사연 활동 사진

• 축제 때 문을 여는 공대사진관입니다.



•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들입니다.



금사연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L.LINE Main Vision

창의성은 제품을 만들고
믿음은 기업을 만들고
도전은 가치를 담고
노력은 빛을 뿌린다

우리는 성장한다. 그리고 최고를 꿈꾼다.

▲ 기계시스템공학과 08학번 김진형 L.LINE대표(2017년 졸업)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혁신관에 위치한 엘라인(L.LINE) 사무실 겸 연구실



나란히 붙어있는 3대의 3D프린터가 설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L.LINE은 연구개발 대행과 자동차 전장 부품 등 조립 검토용 제품을 많이 제작하는 3D 서비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품 완성도 부분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3D프린터 제작 분야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진 업체로 성장하고 싶은 것이 김진형 대표의 마음이다.

“군대에 다녀온 후 개인 사정으로 복학을 못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배움의 부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알고 나니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기까지, 그 사이의 과정을 우리 회사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3차원 입체설계를 통해 최적화된 개발 방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최첨단 3D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학과 공부에 집중하던 김진형 대표는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공모전 관련 글을 보고 회사에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하여 교양교과과정정부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2년 연속 1등을 차지했다.

“한 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 공모전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글쓰기, 디자인, 발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30여 개 공모전 참여하며 경험을 쌓았고 그러다보니 수상 경력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죠!”

2013년 한국전력 발명특허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실시간 전기요금 표시장치’로 ‘MBC 도전! 발명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발명왕에 도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만 같았다.

“그때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순수한 생각이었어요. 상품화를 하고, 다시 마케팅을 통해 세일즈를 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요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던 거죠”

한계를 느낄 때 쯤,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해 형광 멀티펜을 만들면서 ‘3D 프린터’를 인식하게 됐다. 구미사에서 창업 지원금을 받아 최초로 3D프린터를 마련하게 된 것이 현재 사업의 출발점이다.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3D프린터를 필요로 하더군요. 대학 창업 동아리 등에서 부품 등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나하나씩 처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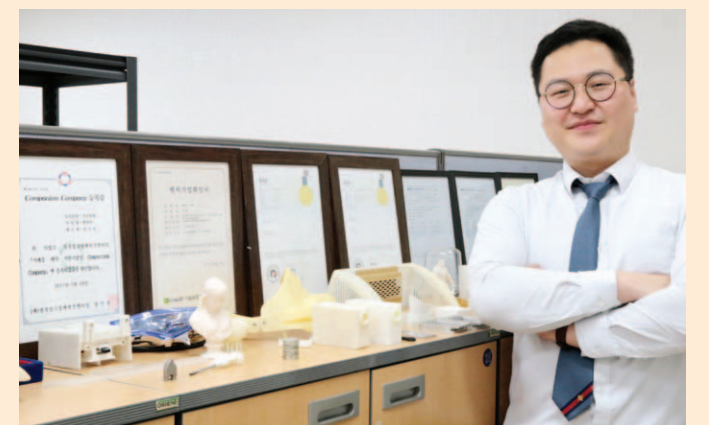
주며 소정의 경비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시작해 연매출 1,200만 원을 달성했고 2015년 1억 5천5백만 원, 2016년과 2017년에 전년 대비 300%이상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33억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죠”

3년 전 처음 이곳에 자리할 때 하나의 사무실 안에 5개의 기업이 함께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무실 전체를 L.LINE이 사용한다. 혼자 시작한 회사의 구성원이 이제는 6명이 되었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업’을 하는 과정은 목숨을 걸만큼 최선을 다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전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일하다 죽겠다 싶을 만큼 일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의미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직원, 이제 다 가족이죠. 이들 가족 구성원이 한 명씩 늘어날수록 책임감은 배로 강해져요. 쉬는 순간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아니 내려가는 길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선택했냐고 물으면 내가 그러갈 수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진형 대표는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특강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본인의 창업노하우를 많은 후배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장실무, 기획서 작성방법, 멘토링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대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제가 돌려줘야죠. 창의성은 제품을 만들고, 믿음은 기업을 만들고, 도전은 가치를 담고, 노력은 빛을 뿌린다는 말을 비전으로 삼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발전하는 L.LINE의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해오름연수원

현황

- 위치 :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361-5번지
- 부지면적 : 6,814㎡(2,061평)
- 시설(지상 3층, 연면적 660㎡)

구분	수량	면적	수용인원(정원)	비고
객실	6실	49.7㎡ (15평)	30명 (1객실당 5명)	방2·거실1·욕실1~4실
				방1·거실1·욕실1~2실
회의실	1실	60㎡ (18평)	회의시 : 30명 숙박시 : 20명	회의, 숙박 겸용 운용

- 건물 배치
 - 1층 : 관리실, 회의실, 공용화장실, 공용 샤워실, 기계실
 - 2·3층 : 객실 6실(2층 : 3실, 3층 : 3실)
- 주요 비치품 : TV, 냉장고, 에어컨, 밥솥, 커피포트, 드라이기, 교자상, 이불세트, 수저 세트, 조리기구, 식기세트



우리 대학 후생복지시설을 안내합니다.

개 원 일 2016. 5. 25.

예 약 안 내 원스톱서비스 - 해오름연수원 - 해오름연수원 예약/조회

- 예약 시 주의사항**
- 예약 및 이용은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학생, 동문만 가능합니다.
 - 예약자와 입금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 이용 시 주의사항**
-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입니다.
 - 입실 시에는 입실등록 확인서를 제출하고 호실열쇠를 수령하며, 퇴실시에는 퇴실 점검표와 함께 호실열쇠를 관리실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학과(부) 단위 또는 동아리 단위 이용 시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임장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하며, 실내에서는 고기 굽기 등 바비큐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혐오 음식의 요리를 금합니다.
 - 각 호실에 비치된 집기는 파손 및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은 금오공대 가족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아름다운 연수공간입니다. 이용자께서는 연수원 이용수칙을 준수하여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변 관 광 지

- 강 구 항** 영덕군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대게로 유명한 곳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전 시 관** 태양·바람·물·지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성 원리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시설과 태양열을 이용한 창포 족욕탕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 괴시전통마을** 영양 남씨 괴사파종택(槐市派宗宅:경북 민속자료 제75호)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재와 전통고가 30여 호가 남아 있어 조상들의 생활과 멋을 엿볼 수 있는 전통 민속마을입니다.
- 고 래 불 해수욕장** 병곡면의 6개 해안 마을을 배경으로 장장 20리에 달해 펼쳐지는 해수욕장으로 고려말 목은 이색선생이 상대산에 올랐다가 고래가 뛰어나는 걸 보고 "고래불"이라 명명하였다고 전하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수욕장 중 하나입니다.
- 장 사 해수욕장** 남정면 장사리 7번 국도변에 위치한 일출이 우수한 해수욕장입니다. 인근의 위령탑은 6.25사변당시 장사상륙작전지로 역사의 발자취가 완연하여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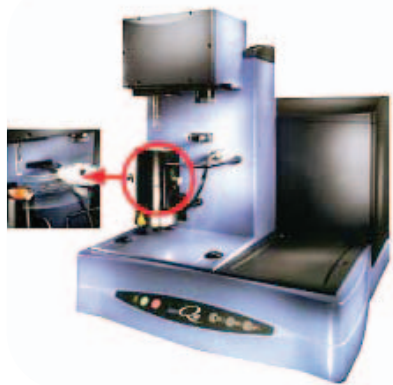
공동실험실습관 장비를 소개합니다.

미래과학기술을 생각하는 “금오공대 공동실험실습관”

금오공과대학교에는 연구자들의 기초과학 연구지원과 실험실습 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연구기관, 타 대학,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미세구조, 열 특성, 원소분석, 표면분석분야」로 특성화한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열특성분석실

열중량분석기 (TGA), 열기계분석기 (TMA), 시차주사열량분석기 (DSC), 열확산도측정기 (LFA), 적외선열화상카메라시스템 (IRT) 등의 열분석장비를 갖춘 분석실로, 시료에 대하여 저온에서부터 초고온에 이르기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면서 일어나는 결정구조의 변화, 상의 변화, 반응 여부 등의 분석을 지원합니다.



열중량분석기 (TGA)

- 원리 및 기능
열에 의한 분해, 승화, 증발, 산화에 따른 시료의 무게의 변화 분석
- 기기 활용
분말, 섬유, 필름, 금속, 유리, 세라믹, 반도체, 식품 등 재료의 열안정성, 산화안정성, 열분해 역학 및 메커니즘 연구
- 사양
 - Temperature Range : Ambient ~ 900°C
 - Heating Rate : 0.01 ~ 100°C/min
 - Balance Capacity : 5 g
 - Atmosphere : N₂, Air



열기계분석기 (TMA)

- 원리 및 기능
시간, 온도, 시료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에 따른 선형 혹은 부피 같은 Dimension의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
- 기기 활용
열팽창계수, 점성, 질 시간과 온도, 수지의 연화와 흐름, Dimension 온도, 유리전이 온도, modulus, 크레이프/응력완화, 인장 측정
- 사양
 - Temperature Range (Max) : RT ~ 1000°C
 - Heating Rate Range : 0.1 to 100°C/min.
 - Sensitivity : 15 nm
 - Resolution (Digital) : 0.15 nm
 - Force Range : 0.1 to 2 N
 - Frequency Range : 0.03 to 2 Hz



시차주사열량분석기 (DSC)

- 원리 및 기능 : 물질의 엔탈피 변화와 전이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열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기기 활용
유리전이 (Glass Transition), 냉각 결정화 (Cold Crystallization), 상 (Phase) 변화, 용융, 결정화, 제품 안정성, 큐어링 (Curing) 및 그 속도, 산화안정성 (Oxidation Stability) 측정
- 사양
 - Temperature Range : -180 to 725°C
 - Temperature Accuracy : ±0.1°C
 - Dynamic Range : ±500 mW
 - Maximum Calorimetric Sensitivity : 0.2 μW
 - Modulation Type : Sinusoidal



열확산도 측정기 (LFA)

- 원리 및 기능 : 온도에 따른 시료의 열확산도, 열전도도 측정
- 기기 활용
 - 고분자, 화학, 유기재료 등의 원료소재 분야
 - 금속, 기계, 자동차 분야
 - 전기, 전자 분야
 - 연료전지, 나노재료 등의 미래학 분야
- 사양
 - 온도 범위 : RT ~ 300°C
 - Xenon-Flash-Lamp 10 J/pulse
 - 측정 범위 : 0.01 mm/s ~ 1000 mm/s (열확산율)
 - 측정 범위 : 0.1 W/mK ~ 2000 W/mK (열전도율)
 - IR 센서로 비접촉식 상승 온도 측정
 - 시료 홀더 : Metal



적외선열화상카메라시스템 (IRT)

- 원리 및 기능 :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되는 열에너지를 적외선 검출기를 통해 복사 강도 분포의 영상으로 구현 (Thermogram)
- 기기 활용
비접촉식 근원거리 온도 측정, 온도 분포/열 패턴 관찰
- 사양
온도 측정 범위 : -20°C ~ 2,000°C



비표면적·기공분포 측정기 (B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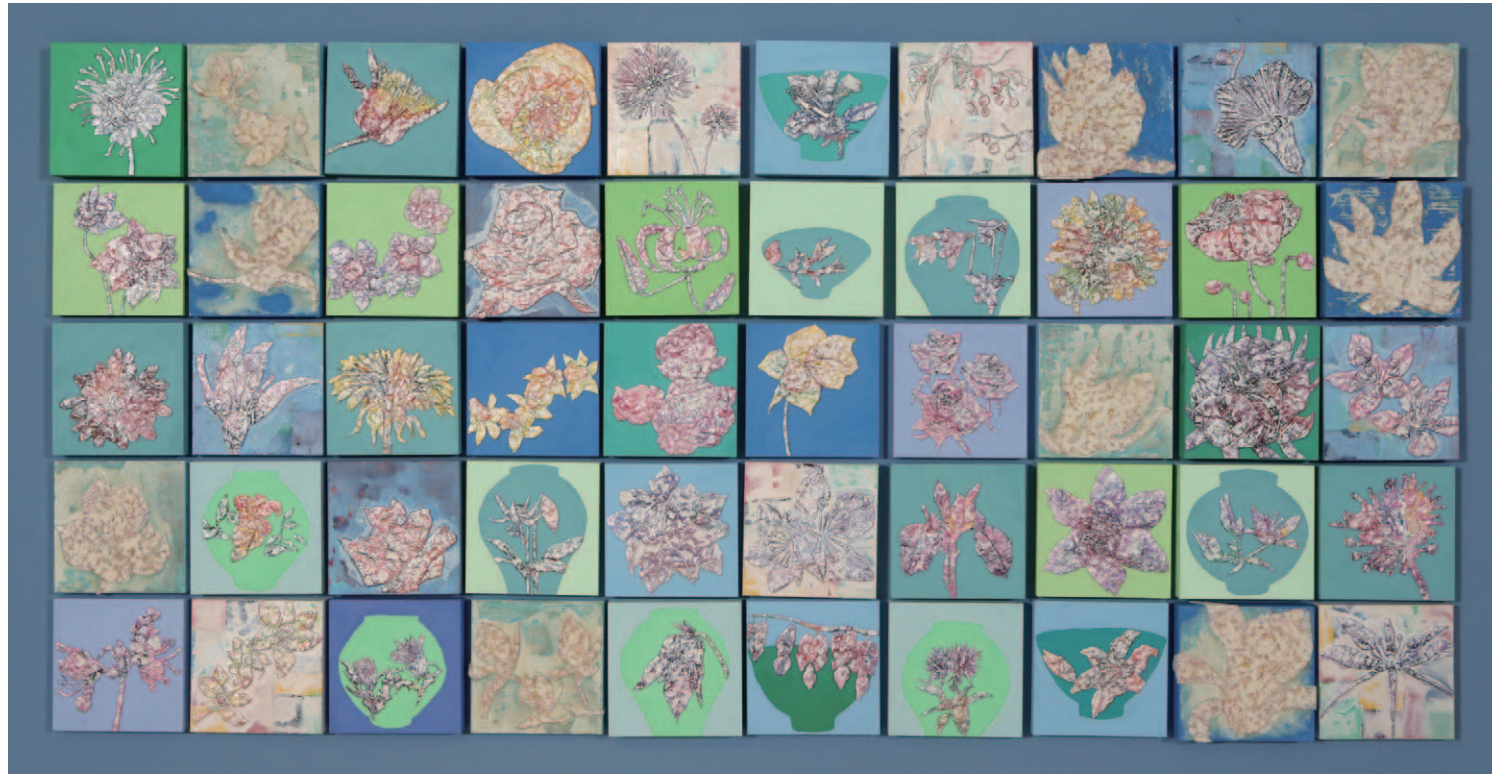
- 원리 및 기능 : 저온에서 상대압력의 변화에 따라 주입 기체가 시료의 표면에 물리적 흡착되어 그 양을 측정함으로써 비표면적 및 기공분포를 분석할 수 있다.
- 기기 활용
 - Full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 BET Surface Area
 - Langmuir Surface Area
 - Pore Size Distribution
 - Total Pore Volume, t-Plot
- 사양
 - Port 수 : 3 port (meso, micropore 가능)
 - 흡착가스 : N₂, Ar, He, CO, CO₂
 - Iso-Controller 이용 상온 흡착 가능
 - 전처리 가능 온도 : 상온 ~ 400°C

금오공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홈페이지 (<http://www.kumohlab.kr>)에 보다 다양한 기기의 이용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4-478-6912, 6914, 6915, 6916)

다음 호에도 이어집니다.

3월 송상헌 초대전 “아버지의 노래”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서양화) 졸업
- 개인전 12회, 아트페어 12회(서울, 대구, 부산, 중국, 제주), 단체전 120여회 참여
- 초현장두건 미술상(2014), 포항불빛미술대전 대상(2014), 포항예술인상(2010), 포항국제아트페스티벌 작가상(2005) 등의 수상경력
- 송상헌 작가는 3월 초대전을 통해 생명의 계절 3월과 꽃을 소재로 ‘아버지의 노래’라는 주제의 한정 작품을 개최하여 부모세대의 젊은 날의 소망과 삶의 열정에 대한 찬사를 전하고자 했다.



Sound-꽃피다 | 60×60cm, 50ea | Mixed Media | 2015



Sound-나의 살던 고향은II | 193.9×112.1cm | Mixed Media | 2017



Sound-꽃피다 | 53×40.9cm | Mixed Media | 2014

4월 유진실 초대전 “城- castle”

- 숙명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
- 개인전 6회, 아트페어 및 단체전 총 50여회 참여
- 미술세계 대상전(세종문화회관/1998), 뉴프런티어 대상(경인 미술관/1999), 관악현대미술제 특선(안양 문예회관/2001), 제3회 모던아트쇼 장려상(세종문화회관/2011), 제15회 서울미술대상전 대상(한전아트 센터/2017) 등의 수상경력
- 이번 초대전을 통해 유진실 작가는 “결국 기억의 세계는 책속의 이야기들처럼 허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의 허구와 진실이 기억과 무의식 속의 기억 등으로 재조립되어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secret garden 장지에 채색, 먹 | 112×145.5cm | 2016



城-castle 장지에 채색, 백금분, 먹 | 162×130.3cm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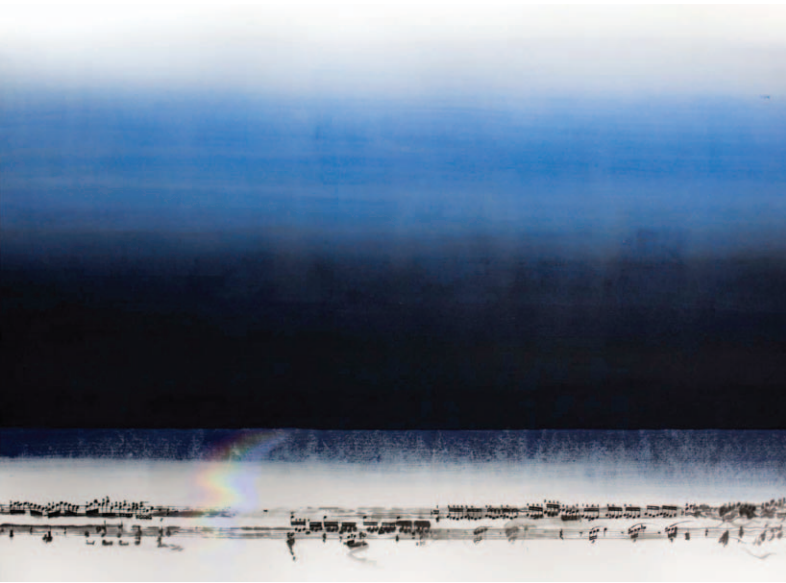
城-castle 장지에 채색, 백금분 | 60.6×72.7cm | 2017

5월 최순녕 초대전 “수묵놀이”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대학원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 박사
- 개인전 전남도립미술관, 뉴욕, 서울, 도쿄, 북경 등 총 25회, 기획전 및 단체전 300여회 참가
- 2017 한·중·일예술전 츠쿠바미술관 우수작가상-일한중실행위원회/일본, 북경 YMCA ‘Bible and love’ 우수작가상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경력
- 최순녕 작가의 수묵놀이 시리즈 작업은 현재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수묵화의 실험성과 미학적 이유를 담으려 노력한 흔적들이다.



새벽을 거닐다-2, 한지에 수묵담채, 믹스컬러 | 165×132.2cm | 2017



새벽을 거닐다-1, 한지에 수묵담채, 믹스컬러 | 165×132.2cm | 2017

후원의 집 소개

♥ (재) 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 후원의 집을 소개합니다.

거제복지	한식 (복어)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49	
054) 462-0096	대표자 : 김영자

마모트	등산복
경북 구미시 공원로372	
054) 444-8890	대표자 : 유학중

신념종합상사	건축 자재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35길 12-12	
054) 475-0980	대표자 : 박충근

포항가자미회	일식 (회)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97	
054) 451-3433	대표자 : 이정태

(주)해피투게더투어	여행사
경북 구미시 아은로455 삼성빌딩 3층	
010-8923-9863	대표자 : 이태식

금오산 한우마을	한식
경북 구미시 옥계남로7-5	
054) 473-8688	대표자 : 김현숙

본도시락 옥계점	한식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74	
054) 474-4285	대표자 : 박희열

신동아인쇄기획	제본 인쇄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2길 5-2	
054) 464-3500	대표자 : 김진순

(주)성운투어	여행사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31길62층	
054) 472-5900	대표자 : 정성윤

※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의 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6.현재

곽현금 발전후원회장 취임식

신임회장에 곽현근 (주)대경테크노 대표이사 취임
발전기금 5천만 원 약정

우리 대학 발전후원회의 제5대 회장 취임식이 3월 27일 오후 6시 30분 교내 청운대에서 열렸다. 곽현근 신임회장은 “지역과 국가의 소중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모교의 발전후원회장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20여 년간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오공대 발전후원회가 대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곽현근 회장은 대학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약정했다.





♥ 기탁자에 대한 예우

순번	예우내용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예우신청 기준금액
1	홍상 또는 기념비	○									일시금
2	시설물 명칭 부여	○	○	○							일시금
3	장학금 명칭 부여	○	○	○							일시금
4	학교행사 초청	○	○	○							누적금
5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	○	○	○						일시금
6	명절선물	평생	평생	4회	2회	1회					누적금
7	언론홍보(보도) (기탁자희망시)	○	○	○	○	○					일시금
8	후원자 현황판 이름 각인	○	○	○	○	○					누적금
9	해오름연수원 (본인) 교직원 요급적용	평생	평생	20년	10년	2년	1년				누적금
10	기부 감사 카드 발송	○	○	○	○	○	○	○	○		일시금
11	골프학습관 이용료 면제 및 할인(본인)	100%	100%	100%/50%	100%/50%	100%/50%	100%/50%	50%	50%		누적금
		평생	평생	20년/평생 (택일)	10년/평생 (택일)	2년/10년 (택일)	1년/5년 (택일)	2년	1년		
12	차량 무료출입 등록 (본인1대)	평생	평생	평생	25년	5년	2년	1년	6개월		누적금
13	발전기금 달력 발송	평생	평생	평생							누적금
					10년	2년	1년	1년	1년	탁상용 달력	일시금
14	평생교육원 교육비 할인	100%	100%	100%	50%	30%	20%	10%	10%	10%	누적금
		평생	10년	5년	5년	3년	2년	2년	1년	6개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15	통학버스 이용권제공 (본인 또는 지정 1인)	평생	평생	평생	평생	10년	5년	2년	1년	6개월	누적금
16	도서관 자료대출/열람 (본인 또는 지정 1인)	평생	평생	평생	평생	10년	5년	2년	1년	6개월	누적금

※ 유의사항

1. 예산범위 내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2. 누적금액 기준 예우는 기탁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음 (약정금액은 제외).

3. 예우는 본인이 신청한 날부터 적용하며, 예우를 받은 경우 기탁금에 해당하는 예우는 소멸됨.

4. 평생교육원 골프아카데미 강좌는 교육비 할인에서 제외됨.

5. ⑪골프학습관 이용료, ⑫평생교육원 교육비 할인, ⑮통학버스 이용권 제공은 중복하여 예우를 받을 수 없음 (선택 1가능).

6. ⑨~⑮까지 항목은 기준금액에 따라 일괄 예우 적용 (단, ⑪·⑭·⑮는 중복 적용 불가).

7. 상·하기예우는 2011년 1월 이전 기탁자도 동일하게 적용.

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약정번호 :

기부자명 ☐ 익명희망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약정자	우편물 수령주소	(우 -)	연락처 자택 H/P	
	동문	☐ 학부(과) _	☐ 대학원 _	
	기업체	회사명 _	대표자 _	
	학부모	학생성명 _	학부(과) _	
구분	교직원			
참여방법	약정금액	금 원 (₩)	추천 ☐ 교수 ☐ 직원 ☐ 기타	
	참여방법	☐ 직접납부 농협은행 785-01-037878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 CMS 자동이체 ☐ 급여이체 (교직원에 한함, 동의서 작성)		
		예금주	(인/서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이체일 1일 15일
		납입기간	금 원씩(회) (년 월 ~ 년 월까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동의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① 서명	
기부금종류	☐ 현금 ☐ 유가증권 ☐ 부동산 ☐ 기타			
기부금용도	☐ 대학사랑기금 ☐ 장학기금 ☐ 지정장학기금(학과명 :) ☐ 대학문화기금 ☐ 시설확충기금 ☐ 도서기금 ☐ 학술연구기금 ☐ 연구기자재확충기금 ☐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동의서	본인은 (재)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하고 기부함에 있어 기부금 입금 처리 및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부금 입금 처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전화번호, 이메일, 기부내역)등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금오공과대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기금으로 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자 ① 서명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장 귀하
금오공과대학교 총 장 귀하



대상 성장은 밤에도 계속된다

잠는 선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발전기금 담당자 귀중



대학발전기금의 종류 및 용도

대학에 일임	금오공대 우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금오공대에 위임
학술 연구 기금	학술 연구 지원, 국제 학술 교류지원, 교수 해외 파견지원, 공동 연구지원, 저명 교수 초청지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
도서관 기금	대학 도서관의 국내외 학술 도서의 구입과 각종 문헌의 확보 및 도서관의 전산화를 기하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장학 기금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외국인장학기금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함
연구기자재기금	첨단 과학과 기초 과학의 연구 및 교수에 필수적인 최신 연구기자재를 확충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시설 확충 기금	교육 및 연구 시설과 후생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안락한 교육여건을 조성
대학 문화 기금	학생들의 대학문화활동에 편의를 도모
기 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경비 등

발전기금 납부방법

방문 납부	직접 금오공대 기획협력처(본관 601호)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농협은행 785-01-037878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또는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로 입금하시고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CMS 자동이체	전국어느은행에서나 자동이체 가능

※ 현금 이외의 현물(주식, 부동산, 소장품 등) 기부 시 기획협력처 (054-478-7080)으로 연락 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개인 기부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법인 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단, 2009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상속재산기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